마음속 구멍과 고양이

(롬11:25~36)

30.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31.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2.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33.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33.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34.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35.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36.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마음속 구멍과 고양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합니다.

일본영화 중에 '고양이를 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생각하게 하는 영화를 주로 제작하는 '오기가미 나오코'라고 하는 여자 감독의 작품입니다.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은 사요코라는 혼기를 넘긴 아가씨인데, 할머니하고 단둘이 살다가 2년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할머니의 영정을 모셔두고 집안에 둘만한 제단을 만들어놓고 할머니의 영정을 바라보며 늘 대화하며 외로움을 달래고 있는 그런 처녀인데, 이 사요코에게 특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말하자면 모태 묘녀(猫女)에요, 고양이 묘(猫)자를 써서 모태 묘녀(猫女)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려서부터 길을 걷다가 뒤를 돌아보면 늘 졸졸 따라오는 것들이 있는

데, 이게 남자면 좋은데 남자가 아니라 고양이들입니다.
이상하게 고양이들이 이 사요코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길 잃고 집을 나와 주인이 없는 고양이인 길양이들이 사요코 뒤를 따라와서 사요코와 함께 그 집안에서 사는데, 무려 열댓 마리나 됩니다.
그렇게 할머니를 잃은 허전한 마음을 고양이들을 키우면서 달래며 지내는데, 그러면서 무얼 하는가 하면 고양이 렌트를 하게 됩니다.
자기가 할머니를 잃고 살면서, 자기 마음속의 빈 공간을 고양이들로 채우면서 외로움을 이겨나가고 있는 자신의 삶에서 착안하여 고양이를 렌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 여섯 일곱 마리를 싣고 리어카를 끌고 돌아다니면서 "렌따~ 네코!" 하면서 다니면 정말 외로운 사람들이 이 고양이를 빌려서 외로움을 달랩니다.

그렇게 이 영화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관통하는 주제가 '마음속의 구멍'입니다.
마음속의 구멍이 있는 사람들에게 고양이를 빌려준다, 그래서 그 고양이로 마음속 구멍을 채워서 외로움을 이겨내라, 이런 마음속 구멍이 이 영화의 주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본영화의 감상후기를 보면 그냥 이렇게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고양이로 마음을 달랜다, 그러니 나도 고양이를 한 마리 살까?' '영화 속에 나오는 고양이들의 이쁜 몸짓들이 마음의 구멍을 채울 수 있을 만큼 다정한 느낌을 준다'
뭐, 이런 식의 영화후기들을 썼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영화가 지향하는 바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름 모르는 이웃집 아주머니가 불쑥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때때마다 담장 너머에 와서, 사요코에게 '전생에 매미였기 때문에 고양이들이 쫓아다닌다, 그리고 키가 너처럼 큰 아가씨들한테는 남자가 따라오지 않는다'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양이로 마음을 달랜다고는 하지만 사요코의 목표는 '금년에는 결혼하기' 두 번째 목표는 그 첫 번째 목표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얼굴을 보지 말자!' 이게 목표입니다.
즉, 얼굴을 보지 않고 금년에는 결혼하기.
그런데 그 이웃집 아주머니는 계속 와서 넌지시 암시를 합니다, '전생에 매미였기 때문에 고양이가 따라다니고 있어서 너의 인연은 고양이와의 인연으로 끝날 것이고 사람인 남자와 결혼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암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마음속의 구멍을 고양이들로 채워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근본적으로 결혼을 해야 해결되는 이 마음속의 구멍은 사요코에게 결코 채워짐이 없다는 이야기를 작가가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결혼이라는 것도 비유적인 의미에요.

마음속의 구멍이 있는데, 사람들은 돈이라는 고양이로 채워보려고 하고, 가족이라는 고양이로 채워보려 하고, 결혼이라는 고양이로 채워보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마음의 구멍은 채워질 수 없다는 이야기를 오히려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고양이를 키워서 고양이로 위로를 받아야지! 외로움을 극복해야지!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마음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진 인격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을 비워두셨어요.
이것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 비워진 마음속으로 영이신 하나님 당신 자신이 들어가서 그 빈 구석을 채우시려고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을 마음으로 지으시되 그 마음을 빈 채로 지으신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집착이라고 하는 것, 무엇을 소원하고 이루려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비워둔 채로 만들어놓은 마음속 구멍으로부터 분출하는 에너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에너지가 없으면 사람은 삶에 대해서 의욕을 느낄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람이 삶에 대해 모든 의욕을 느끼는 것은 바로 이 빈 속을 채우기 위해서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 빈 속은 원래가 하나님이 들어가야 채워질 그런 자리였다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삶의 현장으로 쫓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은 비어있는 채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현실은 어떤 현실이 되었느냐?
채울 수 없는 마음의 구멍을 가지고 채워지지 않을 것들을 향하여 몸부림치면서 평생을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얘기에요.
이러한 배경을 알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좋습니다.

오늘 본문은 9장부터 11장까지 계속되는 이야기로, 동족인 유대인들의 불신앙과 멸망으로 운명 지어졌다고 믿어지는 이방인들의 믿음으로의 전환을 이야기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의 결말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의 논의 속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이끌어가시되 하나님은 구원사적인 관심에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섭리 안에서 볼 때, 믿지 않는 유대인과 믿게 된 이방인의 관계가 서로 따로 별개로 노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관계 안에 놓이게 되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선민인 유대인이 불순종함을 통하여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테반의 죽음 이후에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그 바람에 예루살렘 교회가 사방으로 사마리아 땅을 넘어서 이방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방 땅으로 흩어지게 돼서 그 사람들이 예수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 기회를 받아들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사적이 섭리 안에서 유기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불순종함으로써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이제 또 거꾸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을 보면서 선민이었던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극을 받고 시기를 하고 샘내서라도 그들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기로 작정한 모든 유대인들은 다 믿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적 구원사적 관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 전개를 펼쳐나가는 사도바울의 의도가, 동족의 미래를 구원사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궁극적인 관심은 동족의 미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꾸 주석가들은 9장부터 11장까지를 동족에 대한 이야기가 주제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동족과 이방인의 유기적인 관계에 대해 자꾸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고 물어볼 수 있어요.
오늘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까지 로마서의 전개는 어땠습니까?
행위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서만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얻어 구원을 얻는다, 의롭다 함이 무엇이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이 바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인데 그건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있기 전의 일이었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시켜왔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얻게 된다, 라는 얘기를 해온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구원사적인 지평 위로 끌어올려서 믿음의 더 깊은 속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결론을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믿을까 말까, 믿게 될 때는 이런 의심할 점이 있고 이런 모험을 감행해야 되는 것이고, 안 믿을 때는 요렇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을 때와 안 믿을 때를 가만히 따져보면 결국 믿는 게 더 유익하겠다고 계산하고 결단해서 믿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왜 믿게 되었느냐?
결론을 얘기합니다, 긍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택과 예정에 관한 이야기를 앞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선택과 예정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이었다는 겁니다, 긍휼.
우리가 이신칭의(以信稱義)라고 하지만 사실 이신칭의도 마지막 할 말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애칭의(以愛稱義)였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갖게 되는 원인과 가능성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얘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얻게 한 것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얘기는 대체 하나님은 인간의 어떠한 상태에 대해서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32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에 가두어두셨다, 순종하지 아니 하도록 가두어두셨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거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아담이 죄를 범해서 아담을 쫓아냅니다, 그 쫓아낸 상황은 불순종의 상황일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불순종이란 것은 마음속의 구멍을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으로 채워 넣으려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불순종에 가두었다기보다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을 사도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담의 죄 때문에 당연히 귀결된 상황이 불순종의 상황인데, 그 불순종의 상황에 대

해서 하나님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인격적으로 연합하기 위한 사랑을 하셨다면, 타락 이후에는 그 사랑의 내용이 긍휼로 바뀌어버렸다는 얘깁니다.
불순종의 상태에서 살고 있는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로 바뀌게 만들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 불순종의 상황이라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탤런트 최 진실 씨를 다 아실 겁니다.
2008년엔가 참으로 마음 아프게 자살로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1년 전 2007년에 TV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이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 방송에서 최 진실 씨가 한 이야기가 소개된 글을 보았는데, '아이들 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잡초처럼 살아남아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끝까지 살아남겠다는 결심을 얘기합니다.
감동적이에요.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를 지겨우니 그만 나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그러나 아무리 자기를 지겹다고 해도 자기는 나와야만 된다, 아이들 때문에.
강한 모성애와 질긴 근성에 박수를 보내고 싶은 결단이에요.
그런데 1년 뒤에 자살을 합니다.
그 자살을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 그 프로그램에서 나왔어요.
그녀가 말하기를 '아이들을 재우기 위해 방에 들어가서 아이들 이마에 뽀뽀를 다 해주고 그리고 나와서 내 방에 혼자 들어오면 외롭습니다, 근데 그 외로움이 너무 지독해서 두렵습니다, 밤마다 그 외로움이 두려움으로 변하는 상황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두려움이 마음속 구멍을 채울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이 가져다주는 이 두려움이 이 세상에서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다고 느껴지는 강한 모성애조차도 무력화시키고 자살을 하게 한 겁니다.
마릴린몬로가 왜 죽었을 것 같습니까? 똑같은 이유에요.
마음속 구멍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헤밍웨이가 왜 자살했을 것 같습니까? 똑같은 이유입니다.
최 진실 씨나 마릴린몬로, 헤밍웨이의 공통점은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가치를 성취한 사람들이라는 점이에요.
우리같이 보통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뛰고 있기 때문에 아

직 마음속 구멍이 가져다주는 이 극복이 불가능한 두려움을 못 느끼고 있어요, 아직도 소망에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이룬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한 부류는 이루었는데도 마음속 구멍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직도 부족한줄 알고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뛰고 더 많이 높아져야 되는 줄 압니다.
또 한 부류는 가질 만큼 가졌는데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것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는 내 마음의 구멍을 채울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다가오는 두려움은 극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모든 사람이 느끼게 되는 두려움이 바로 그 두려움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내 마음의 구멍을 채울 수가 없다고 하는 이 두려움, 그 마음에 뻥 뚫린 구멍을 평생 아니, 영원히 안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멸망인 것이에요.
그 구멍이 그렇게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달려가고 있느라고 모르고 있을 뿐이지요.
이 구멍을 안고 있는 인간의 현실은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채우시려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얼마나 큰 사랑이십니까?
영원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가 되기 위한 상대자로 삼으셔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으로 채워 넣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극복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끝날 것이고, 그 두려움이 영원토록 그 마음에 함께 할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사건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이 긍휼을 거부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셔 들이려 하는 대신, 이 세상 것을 끌어당겨서 마음에 채우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의 결론은 이것이에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인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내 빈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 들이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궁극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갖는 것이냐?
이 믿음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긍휼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게 되었다고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사도바울이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마음속 구멍을 채울 길이 없어 극복할 수 없는 두려움 앞에 놓여 있는 우리를 보시며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을 보내주시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긍휼을 잊지 않고 살므로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오직 은혜에 은혜임을 알고, 돈이 없어도 일이 안 되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은혜의 바다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